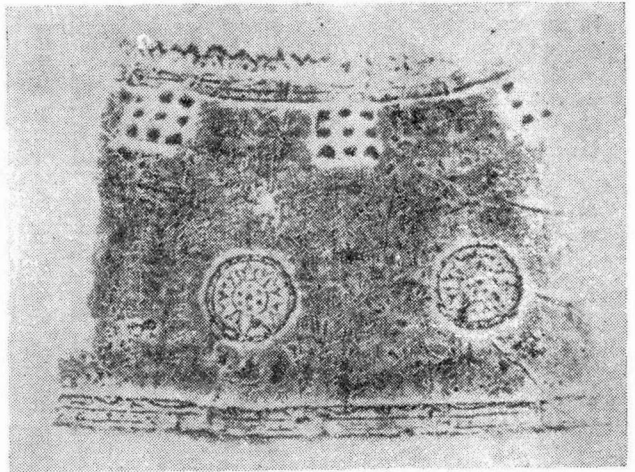


(5) 大邱 張桂煥氏 所藏 小鐘

鐘高(甬除外) 一六cm
上徑 七cm 下徑 一〇cm
三cm 鐘厚 八cm

圓筒形에 가까운小品으로서 龍紐만이 없고 頂上의 甬筒을 비릇하여 各部樣式은 均整하며 彫飾 또한 流麗하다. 鍾肩에는 立狀蓮紋帶가 周回하였으며 上下帶는 雷紋을 주로하고 그 上下에 連珠文을 돌렸다. 다시 그 밑으로는 珠文方廓內에 圓座의 九乳를 넣었으며 鍾腹에는 乳廓間에 飛天(合掌坐像, 光背蓮臺座)과 蓮花紋圓形撞座가 交互配置되고 있다.



(4) 國立博物館(慶州)所藏 小鐘

兩「己酉十二月十七日」刻□□
鐘高 一七cm 下徑 一〇cm
上徑 七·三cm

(5) 大邱 張桂煥氏 所藏 小鐘 (無銘)

圓筒形에 가까운小品으로서 龍紐만이 없고 頂上의 甬筒을 비릇하여 各部樣式은 均整하며 彫飾 또한 流麗하다. 鍾肩에는 立狀蓮紋帶가 周回하였으며 上下帶는 雷紋을 주로하고 그 上下에 連珠文을 돌렸다. 다시 그 밑으로는 珠文方廓內에 圓座의 九乳를 넣었으며 鍾腹에는 乳廓間에 飛天(合掌坐像, 光背蓮臺座)과 蓮花紋圓形撞座가 交互配置되고 있다.

熊川の 鋪石住居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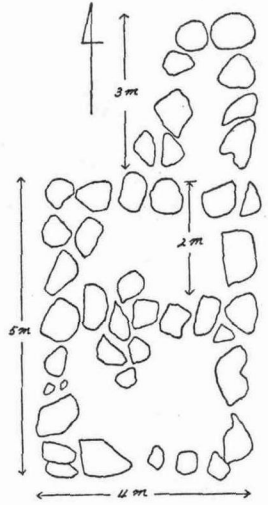
金 元 龍

〔註記〕 이 鍾은 一九五四年頃 慶北 高靈郡 牛谷面 四村里 所在의 寺址에서 灌漑工事中 金鼓 一個(徑約 一尺 無銘이며 圓圈 帶條 以外는 無紋)와 더불어 出土된 것이라고 傳한다. 鍾拓을 마련하여 朴敬源氏에게 謝意를 表한다.

韓國 先史時代의 家屋은 움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圓形 또는 方形 구덩이에 簡單한 지붕을 씌운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所謂 竪穴式住居址는 咸鏡北道 雄基, 平安南道 平壤附近, 慶南 金海 같은 곳에서 過去 그 存在가 報告되어 있고, 解放後 一九四九年에 北韓에서 發掘된 咸北 羅津 草島 遺蹟의 住居址는 長方形 竪穴로서 中央에는 爐址가 있고 竪穴 周圍에는 기둥이 꽂혔던 柱穴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. 地下에 土室을 판 움집은 現代에도 볼 수 있으며 人類學雜誌 三九卷 三號에는 一九二四年 當時 金海에 있던 冬期 덧자리 製作室으로서의 움집이 紹介되어 있다.

그런데 一九四九年에 本人이 慶南 熊川 子馬山 위에서 偶然히 發見한 原史時代住居址는 돌이 깔려 있어 注目된다. 이 住居址는 子馬山 위에 있는 貝塚의 西北方 山頂 平地에 있으며 이와 좀 떨어진 곳에는 竪壙式 石室墓群이 있다.

이 住居址中의 하나를 보건대 그것은 地表에 露出되어 있으며 五米 x 四米의 方形으로 넙적넙적한 不整形花崗岩을 깔았고 그 돌의 表面이 平坦한 것이 注意된다. 그리고 北壁에서 南으로 二米 되는 位置에 一列로 돌을 깔아 그 平面을 東西로 兩斷하고 있고 다시 北壁에 다가 東偏하여 길이 約 三米의 突出部를 내고 있다. 이와 같은 突出部는 日本新石器時代의 鋪石住居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이며 그것은 아마 出入口라고 믿어지는 것이다. 日本의 住居址例에서는 그것이 圓形이고 돌은 圓形內部全



熊川 住居址 平面

가진 것이고 그 위에 진흙 같은 것으로 벽을 쌓아 올렸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. 또 間壁을 두어 二室으로 만든 것 같은 것은 進步된 方法인데 이 間壁같은 石列은 或是 爐址 같은 것과 關連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.

이것이 或是 훨씬 後代의 어떠한 建物址가 아닌가도 疑心할 수 있겠지만 實査해 본 結果 그 附近에 瓦片이나 其他 後代建物에 關係되는 遺物이 絶無할 뿐 아니라 그 돌들이 단단한 地面에 꼭 박혀 있어 地面과 石上面이 同一한 것 등으로 元來 이 돌들이 地下에 若干 묻혀있던 것이 表土가 쓸려 나가 地上에 露出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 더구나 그것이 原史時代의 貝塚과 近接하고 있는 點으로 보아도 아마 貝塚과 關連되는 原史時代의 山上住居址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. 이 遺蹟을 略調査한 後 動亂이 일어나고 뒤이어 長期 國外旅行等 多事하여 아직 仔細한 報告文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豫報로써 그 存在를 紹介해 두는 바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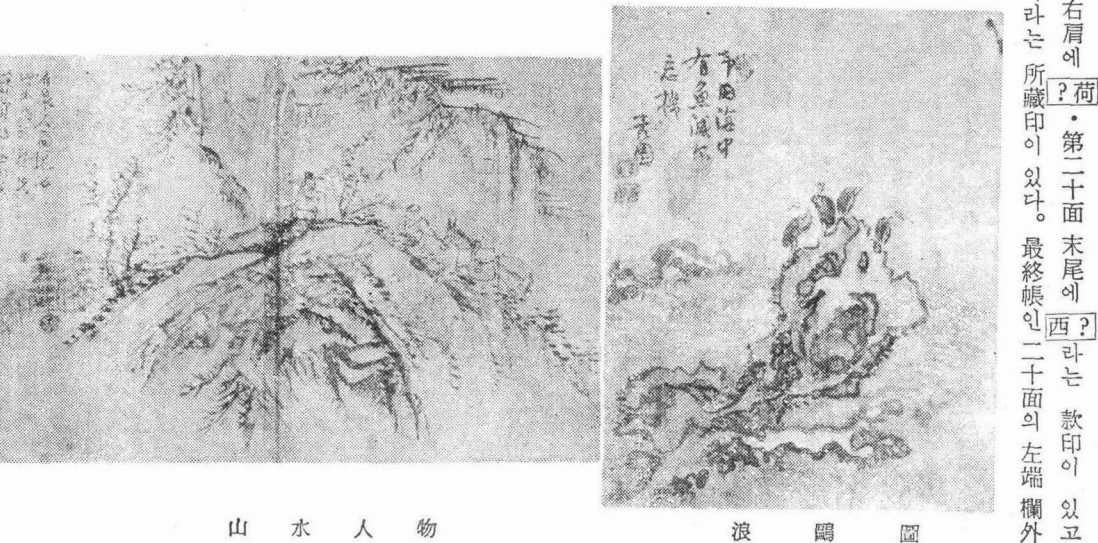
面에 깔려 있는데 우 리 것은 略圖에서 보 다시피 全形이 矩形이 고 內部에는 없고 住居의 輪廓만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. 이것은 或是 이 돌들이 一種의 礎石의 意義를

畫帖『虛無』

全 卷 弼

鄙藏書畫에 「虛無」라 題한 筆者와 年代가 다 未詳인 古畫帖一卷이 있다. 紺紙로 表裝한 外邊 高二九·五cm 幅二二·三cm의 二十面으로 된 山

水畫帖으로서 第一面 右肩에 荷? 第二十面 末尾에 西? 라는 所藏印이 있다. 最終帳인 二十面の 左端欄外에는 楷書로 「戊戌春 奉贈韓碩士 玉淵題」라 있는 것으로 보아 이 畫帖이 「玉淵」이라는 舊所藏者로부터 韓碩士라는 人物에게 보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第二面에 적힌 「西原後人」 「韓相學」이라는 款印은 이 韓碩士의 所藏印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第一面과 第二十面에 적힌 未解得의 款印과의 關係는 알 수가 없다.



山 水 人 物

浪 鷗 圖